■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쳐들어 온다" 방송 박영순씨

30년 침묵…"이젠 자랑스럽게 말해야죠"

내란죄로 복역…출소 후 악몽 시달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족까지 큰 고통

목포시 신안동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순씨가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도청 본관 외벽에 부착된 스피커에선 젊은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진압군의 도청 진입을 목전에 두고 광주시민에게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방송이었다.

그러나 방송 세 시간 뒤 열흘간 지속된 민중항쟁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마지막 항전에 나선 시민군들은 새벽 4시10분께 도청으로 밀어닥친 진압군에 의해 처절하게 쓰러졌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1일, 목포시 신안동의 한 유치원에서 만난 박영순(여·51·목포시 산정동)씨. 박씨는 민중항쟁 당시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주인공으로,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의 대사를 통해 활약상이 널리 알려졌다.

5·18 당시 전옥주·차명숙씨가 주로 항쟁 초기에 가두방송을 했으며, 박영순·이경희씨는 항쟁 말기에 실상을 알리는 방송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영화 개봉을 전후로 전국의 각종 언론에서의 인터뷰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 80년 당시의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기조차 싫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씨는 '화려한 휴가'도 보지 않았다.

현재 목포교육청 소속 유아 순회교사인 박씨는 80년 당시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중 가야금 특별활동 교사로 활동하다 항쟁에 참여했다. 박씨는 1980년 5월 20일 가야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이 쏜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했다.

박씨는 "눈앞에서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어떻게든 진압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가두방송 차량에 올랐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이날부터 27일 새벽 마지막 방송까지 일주일간 광주시내를 돌며 항쟁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항쟁 참여는 박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박씨는 항쟁 마지막날 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군화발로 짓밟히고 차여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3개월간 계속된 경찰의 조사로 고통 속에서 밤잠을 설쳐야 했다.

박씨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말께 크리스마스 특사로 7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박씨는 "출소 이후에도 한동안은 심각한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다"며 "항쟁 후 10년이 지나서야 복학해 졸업을 했지만 당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박씨는 또 "5·18은 한동안 간절히도 잊고 싶은 기억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이제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동안 남들 앞에서 5월 항쟁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오해와 선입견 때문"이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5·18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항쟁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양수현기자 yang@

경찰 5·18 초비상

민주노총·전공노 집회 … 물리적 충돌 우려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기간 중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경찰이 경비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집회가 반정부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 집회시 강경 진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노동자 2000~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적 철폐·금호타이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될 5월 정신계승 및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기념하는 국민대회에 일부 조합원이 참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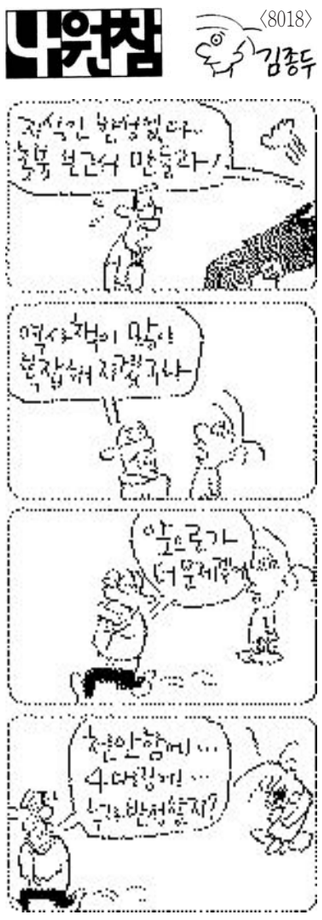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15일 광주에서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공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20개 중대(경력 1200명) 경비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물대포 1대·방송차 1대·구급차 1대 등도 집회 현장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200명을 현장 인근에 배치한 뒤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력을 현장에 투입, 해산시킬 방침이다.

경찰은 또 채증팀을 꾸린 뒤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경찰, 영광 모 신문사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영광 Y신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보도 관련 서류 등을 압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성 지역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신문사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고 신문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선거 출마자와 거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곡성군수 후보 차 위치추적기 부착

용의자 1명 구속 2명 자수

'곡성 군수 예비후보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의 용의자 임모(50)씨가 구속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쫓기던 장모(31)씨 등 2명이 자수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11일 곡성경찰은 민주당 조형래 곡성 군수 예비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임모(50)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날 임씨의 지시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진 장모(31)씨 등 3명 중 2명이 자수했다.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추고 서울에서 도피중이던 장씨 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쫓겨왔다.

임씨는 지난달 23일 허남석 곡성군수 예비후보의 동생(52)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장씨 등 3명에게 전달해 조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허 후보는 몰랐던 일"이라며 허 후보의 연루를 부인했으며 허 후보의 동생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도피 중인 장씨의 동생(28)을 추적하는 한편 장씨 등이 자수함에 따라 실제 허 후보의 동생이 임씨에게 돈을 건넸는지와 이번 사건에 허 후보가 연루돼 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무안군수 후보 지지 당부 문자메시지 보낸 둘 영장

무안경찰은 11일 특정 군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민주당 당원 박모(52), 최모(46)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4일과 28일 이틀간 무안군수 모 예비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불법 문자 메시지 4000여 건을 보낸 혐의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자녀와 동반자살 시도 30대 가장 구속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자살 시도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뒤 자녀를 살해하려한 주모(34)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지리산 뱀사골 인근 한 콘도에서 딸(10)·아들(3) 등 2명을 미리 준비해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 안방에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으나 사라진 지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테마열차 '주먹밥 체험' 5·18 민중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11일 오전 광주 도시철도공사 농성역에서 출발한 '5·18 테마열차'안에서 5·18 기념재단 국제인턴들이 손수 만든 주먹밥을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집전화 쓰자" 초등생 속여 도둑질

쌍나팔

○…서울 동대문경찰은 11일 초등학생을 속여 집에 따라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0), 이모(20)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J아파트 7층에 사는 이모(8·초등학교 2년)군에게 "전화기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 김군 집에 함께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목걸이, 팔찌 등 3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57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도둑질을 하려다 집에 있던 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불잡혔다"고 설명. /연합뉴스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편입수학 미적분학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8088, 227-8088